

# 공공기관 공간 활용 '광산형 구독오피스'

### 22일 개소식... 시민들에 공공시설 유휴공간 제공 다양한 활동 뒷받침 전국 최초 민간 플랫폼 협업 '당근광산 프로젝트' 혁신 서비스 확장

전국 최초로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 공공일지리를 찾고 신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인 광주 광산구가 이번에는 '구독오피스'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생활 커뮤니티 민간 플랫폼인 '당근'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자리, 공간 등 지역의 필요정보를 시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당신 근처의, 광산(당근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만 3300만 명에 달하는 당근의 저변 인프라 등 뛰어난 접근성에 광산구의 공공 정보를 결합해 시민에게 새로운 가치와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민간 공동협력 추진체계 마련에 나섰다.

먼저 일자리 플랫폼인 '민간참여형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이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참여를 바탕으로 광산구가 당근 앱(당근알바)에 모집 정보를 올려 시설과 시민을 연결하고,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광산시민수당(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11월 말까지 총 116회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719명이 지원해 게시 30분도 되지 않아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는 민간 플랫폼인

당근과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로, 높은 인기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참여의 다양화'로 향후 규정 전반에 접목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일자리 사업은 행정정보에 밀접한 주민이나 자격과 경력이 있는 주민 위주로 운영됐으나, 민간참여형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고 외국인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에선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며, 시민 누구나 당근 앱을 통해 나와 가까운 곳, 내 집 근처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찾고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일자리 플랫폼의 큰 성공에 이어 공간 정보를 시민과 연결하는 '광산형 구독오피스'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의 경직된 공간 운영 방식으로, 주민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당근광산 프로젝트'도 또 하나의 혁신 서비스다.

당근 앱 내에 '광산형 구독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구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적으로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촌아트팩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에 설치된 '광산형 구독오피스'.

토리, 광산공유센터,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광주중성역세권센터 등 광산구의 5개 공공시설에서 운영한다.

광산구는 22일 '구독공간 개소식'을 열고 시스템 구축 결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밝힌 계획이다. 서비스 시작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은 시민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공공일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공공기관의 공간 활용,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구독오피스'도 성공적인 광산발 혁신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우수지자체 선정

### 광주 유일... 경영자원 2위·종합경쟁력 5위·경영성과 부문 6위

광주 광산구는 "전국 226개 자치구를 평가하는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경영자원 부문 2위, 종합경쟁력 5위, 경영성과 부문 6위를 차지하며 광주 유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지자체, 정부 부처 공식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해 경영자원, 활동, 성과 3개 부문과 이를 합산한 종합경쟁력 부문으로 전국 지자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 사·군·구 도시 경쟁력을 검증하는 올해 평가에서 광산구는 종합경쟁력 563.2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으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인적 자원, 도시 기반 시설(인프라), 산업

기반을 측정하는 경영자원 부문에선 192.3점으로 전국 2위를, 경영성과 부문에선 232.1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산구는 주민 평균연령 39.5세(전국 2위), 유소년인구 14.9%(전국 9위)로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도시이자 미래차 국가산단, 자율주행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품은 광주의 미래를 주도하는 '지속성장 도시'라는 평가도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 경제지도의 중심이자,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광산구가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이 우수한 도시임이 입증됐다"면서 "소통, 상생, 혁신으로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직원들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 광산구, 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2개 분야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및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2개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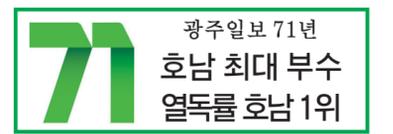
광산구는 21개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11종 건강상담 물품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현장 기반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맞춤형 사업 발굴, 민·관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지원체계를 확립한 덕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분야에서는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민관 협력을 토대로 높은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끌어낸 것이 우수 성과로 꼽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 촘촘한 민관 전달체계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이로운 광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이주청소년 위한 생활정보 "다 있다"

### 광산구 서부교육청·다가치센터·교사, 교육 영상 5편 제작

광주 광산구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다가치센터, 지역 교사 등과 협업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교육 영상 5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상 제작은 지난 5월 교육이슈심의회 '이음톡톡'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문화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광산구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의견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영상자료 제작을 추진해 왔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다가치센터를 비롯한 이주배경 학생 재학 비율이 높은 하남중앙초, 대만초, 월곡초 등 현직 교사 9명이 영상 제작에 참여

했다. 콘텐츠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을 거쳐 학생용 1편, 학부모용 4편 등 5편의 러시아어 영상이 제작됐다.

관련 영상은 광산구 평생학습 포털 '배우랑개'(edu.gwangsan.go.kr),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채널(www.youtube.com/@gwangjuedu)에서 볼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이주배경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학교, 지역사회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송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탄력'

### 총 예산 196억, 국비 98억 확보... 선암동·소촌동 침수취약지 정비

광주 광산구는 "송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위한 국비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예산 확보로 2024년부터 선암동, 소촌동 일대 침수 취약지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196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136필지 3.3ha(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도 저지대 강제 배수시설 등이 없어 침수 피해 발생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광산구는 선운2지구 등을 비롯한 침수 위험도가 높은 송정지구 17.2ha를 2022년 12월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광산구는 2024년 신규 사업비로 국비 98억 원과 시비 49억 원 등 총 147억 원의 사업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광산구는 내년 실시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선암동, 소촌동 일원 주민이 집중호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만들겠다"며 "송정지구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9개소도 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